

# 현대차그룹, 글로벌 실적 견조... '친환경·현지화' 전략 주효

3분기 북미공장 가동률 100% 넘겨  
英 점유율 10% 돌파... 최다판매 전망  
아이오닉5N 등 전기차 라인업 확대

현대자동차그룹이 '친환경·현지화' 전략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정적인 판매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비롯해 고금리에 따른 소비 위축 지속 등의 악재에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의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바라볼 정도다. 중국에서는 현지 맞춤형 전기차 등을 출시하며 반등을 예고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3분기 북미 공장에서 평균 가동률 100%를 넘기며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 북미 공장 생산 능력은 27만7700대다. 생산 실적은 27만830대로 가동률 100.2%를 기록했다. 기아도 23만 1000대의 생산 능력에 27만1150대를 생산하며 가동률 117.4%로 현대차를 앞질렀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앨라배마주



현대차 투싼



기아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2006년 완공)와 조지아주(2009년 완공)에 각각 공장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상승세를 연말까지 이어갈 경우 올해 북미 시장에서 역대 최대 판매량을 기록할 수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현대차·기아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인기가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9월 미국에서 친환경차를 전년 동월 대비 128% 증가한 2만5701대를 판매했다. 친환경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8%까지 증가했다. 결국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판매량

이 감소할 것이라는 주변의 우려를 잠재웠다.

또 현대차그룹은 유럽 자동차 산업 수요 2위 국가인 영국에서도 전동화 모델을 앞세워 올해 최고 성적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현재 전동화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영국 시장 공략을 위해 폭넓은 친환경차 라인업을 내놓고 있다.

영국자동차공업협회(SMMT)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등 현대차그룹 완성차 브랜드는 올해 1~10월 영국 자동차(승용 기준) 시장에서 전년 동기(15만

9541대) 대비 8.7% 증가한 17만3428대를 판매하며 점유율 10.8%를 기록했다. 지금까지의 누적 판매 성장률이 연말까지 유지될 경우 올해 영국 판매는 종전 최다인 2017년(18만6625대)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브랜드별로는 현대차가 올해 누적 7만5456대를 팔아 영국 전체 시장에서 8위를 차지했다. 기아는 9만6784대로 4위에 이름을 올리며 현지 최상위권 브랜드로 도약했다. 2021년 영국 시장에 도전장을 던진 제네시스는 1188대를 판매하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연간 판매 1000대를 달성했다. 모델별 판매 순위에서는 기아 스포티지(3만1575대)와 현대차 투싼(2만9990대)이 각각 4, 6위를 기록 중이다. 두 모델 모두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순위(스포티지 6위·투싼 7위)를 끌어올렸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우수한 상품성을 보유한 다양한 친환경차 라인업을 추가해 영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중국승용차시장정보분석회(CPC

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올 10월까지 중국 시장에서 총 26만2976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대비 8.9% 감소한 수치이다. 양사 합산 지난달 월간 판매량은 전년 대비 7.7% 하락한 2만622대에 그쳤다. 그러나 현대차·기아는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트렌드에 맞춰 고성능과 친환경 모델을 잇따라 선보일 방침이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 모델을 대거 선보인다. 현대차는 오는 26일 열리는 광주 모터쇼를 통해 첫 고성능 전기차 '아이오닉 5N'을 공개한다. 아이오닉 5N은 현대차의 기술력을 집대성한 고성능 전기차 모델로 최고출력 650마력이며, 제로백(정지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 시간)은 3.4초에 불과하다. 현대차는 또 지난 8월 청두 오토쇼에서 선보인 '더 뉴 엘란트라 N'(아반떼 N)을 광주모터쇼를 통해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기아는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운다. 기아는 중국 시장 전략모델 EV5를 지난 17일부터 판매에 돌입했다. EV5는 EV6,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 모델로 중국 시장을 우선적으로 겨냥한다. 기아는 중국 연청공장에서 EV5를 생산한다. 현대차그룹 전기차 플랫폼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륜 기반 전용 EV이기도 하다. 또 기아는 EV5를 시작으로 EV4, EV3 등을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기아 EV4 콘셉트(왼쪽부터), EV5, EV3 콘셉트.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전국 소비 2.7% 감소... 14년만에 최대폭

통계청 3분기 지역경제동향  
여행객 감소, 날씨 변화 등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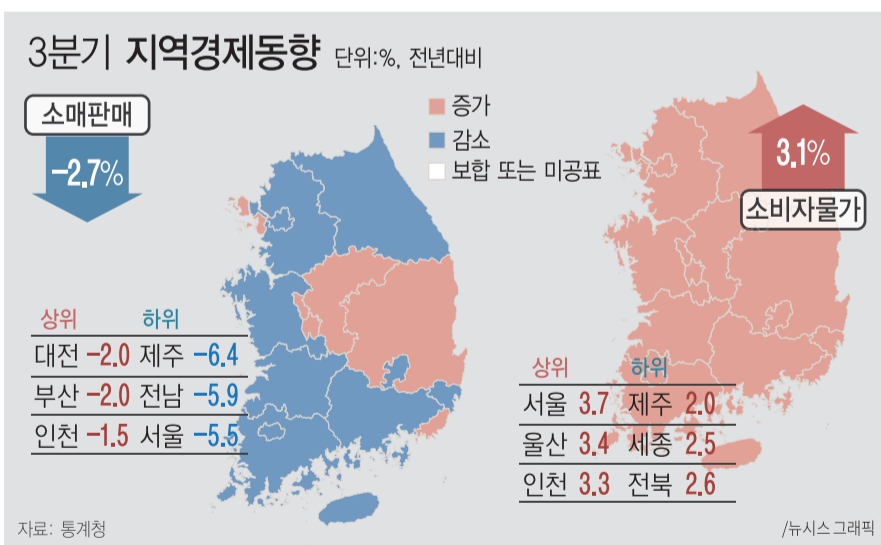
지난 3분기 전국 소매판매(소비)가 1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면세점 등의 판매가 감소한 영향이 컸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3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소비 추이를 나타내는 소매판매가 국내 17개 주요 시·도 중 11곳에서 줄어 1년 전에 비해 2.7% 감소했다. 이는 2009년 1분기(-4.5%)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제주(-6.4%)가 가장 크게 줄었고 전남(-5.9%), 서울(-5.5%)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산(2.0%)과 대전(2.0%), 인천(1.5%) 등 6개 시도에서는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여행객이 감소하면서 면세점 화장품 구매가 감소했다"며 "3분기 따뜻한 날씨에 의류 판매가 부진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적으로 1.9% 늘었으나 증가폭은 2021년 1분기(0.8%) 이후 10분기 사이 가장 작았다. 금융·보험, 운수·창고, 부동산 등의 생산이 늘며 인천(6.1%), 서울(5.2%), 광주(4.6%) 등 12개 시도는 증가했다. 반면 정보통신,



예술·스포츠·여가, 숙박·음식점 등의 생산이 줄면서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감소했다.

수출은 1년 전보다 9.7% 줄며 4분기째 감소했다. 충남(-27.3%), 전남(-25.4%), 세종(-23.2%) 등 11개 시도에서 메모리 반도체, 철강 판, 인쇄회로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줄었다. 광공업 생산도 전년동기 대비 감소(-2.0%)했다. 지난해 4분기를 시작으로 4분기 연속 내림세다. 경남(0.9%), 강원(0.5%) 등 3개 시도는 증가했지만, 부산(-16.3%), 경북(-7.5%), 충북(-7.4%) 등 14개 시도는 생산이 줄었다.

소비자 물가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 등이 오르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상승했다. 서울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으며 제주(2.0%)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17개 시도 고용률은 63.2%로 30대, 50대, 60대이상에서 오르면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0.4%포인트(p) 올랐다. 광주(1.4%p), 강원(1.3%p), 경남(1.2%p) 등 12개 시도의 고용률은 상승했지만, 대전(-0.3%p), 제주(-0.3%p), 충남(-0.1%p) 등은 내렸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SK그룹, 기술나눔 앞장... 특히 171건 이전

기술사업화 대전서 상세 소개 예정

SK이노베이션·SK하이닉스·SK텔레콤·SK실트론 등 SK그룹 4개사가 자사 보유 특허 171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나눠준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SK그룹이 이번에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기술은 반도체, 정보통신, 화학 등 3개 기술분야로 분류되며, 주요 기술은 '공동주택 연료전지 시스템', '버너를 활용한 디젤엔진의 매연 저감장치', '인터페이스 장치를 이용한 반도체 제조 시스템', '특정지역 혼잡도 측정 시스템', '패드 보정장치를 포함하는 웨이퍼 연마장치' 등이다.

SK그룹은 이달 28일 기술사업화 대전에서 기술나눔을 통해 공개하는 주요 기술들을 기업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SK그룹은 그간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을 적극 실천하기 위해 기술나눔에 가장 먼저 참여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44개 기업에 239건의 기술을 무료로 이전했다.

SK그룹으로부터 기술나눔을 받은 플렉스는 "기간 콘텐츠 공유·전송 특허"를 활용해 유아용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개발, 영유아 대상 영상일기 심리

분석 앱 고도화를 추진하는 한편, 유치원과 학교 등에 제공해 2억7000만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SK플래닛으로부터 '단말로의 위치 기반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술을 이전 받은 비지트는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한 위치서비스 기반 360VR 이미지 제작 모바일 앱을 개발, 전 세계 업계 최초로 실시간 실내외 로드뷰 연동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티맵의 위치서비스 기반 모바일 앱 지도 추가 사용을 진행 중이며, 구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동남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특히를 이전받고자 하는 기업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공고에 따라 내년 1월5일까지 국가기술은행을 통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기술을 이전받을 기업으로 확정되면 무상으로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다.

이민우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SK그룹이 공개한 다양한 산업분야의 우수한 기술들은 중소기업의 신사업 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 기술나눔은 기존 참여기관뿐만 아니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등까지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